본사업은 **2003**년도국가인권위원회민간보조사업으로추진된것이나**, ‘**본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2001.12.17

(병무청 관계자)

오늘 입영일인데 이렇게 와서는 난리법석을 떨구 그래요?

(연대 관계자)

오태양씨는 단순히 병역거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병역) 제도를 존중하면서…

다만 본인의 양심에 따라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다.

(병)

진지하게 접근할게 어디 있어요, 병역기피면 기피죠.

————————————————————————

(어머니)

서운하지… 군대 안가는게 뭐 자랑스럽다고 자랑을 하겠어요. 하하.. 국가의 법을 어겨 먹은 사람이 뭐를 자랑스럽다고 말을 하겠어요. 교도소 갈 지도 모르는데…

————————————————————————

민가협 목요 집회

(정진우 월곡교회 목사)

내 이웃을 내 맘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명령을 가장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목사인 제가 그분들이 양심을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며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런 고난을 헤쳐 나가고 있는데, 눈 멀고 귀 먹은 것 처럼 그들은 이단이라 손가락질 하고 단 한번도 진지하게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어 본 적이 없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해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그 많은 꽃같은 젊은이들을 감옥 속에 밀어놓고, 우리가 과연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윤호 청년우파단체)

남들이 싫건 좋건, 자의건 타의건 간에 다 가는 건데. 어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군 가산점 폐지 되었지. 군대 갔다오면 여자들 시선 이상해지죠. 일명 머리가 굳어진다고 그러고, 썩어서 나온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은? 단지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회를 좋아합니까 그사람들은? 날로 먹게?

(정용욱 평화인권연대)

양심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런 전통적 가치관이라는지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그런 바람직한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개별적인 자기 생각들, 의견들, 그런 주장들 이러한 것들을 표출해내는 하나의 방식이고…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양심이 내면에서 머물러 있을때, 내심에 머물러 있을 땐 그건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세계로 표출되고 행동으로 구체화 될 때엔 우리가 제 헌법 제 37조 이항에 명라되어있다시피 국가안전보장이라던가 질서유지라던가, 공공공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법률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바깥으로 드러나면 무조건 처벌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양심이 마음 속에 있을 땐 당연히 불처벌이고. 드러났을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이냐? 그건 아니라 드러났을 경우, 여러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서 그사람을 가능하면 보장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라는 것이죠.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글쎼요. 그들이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택하는 길이라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제 신념에 따라 또는 제 철학에 따라 감옥에 가겠다 한다면 그거 몇년 간 가서… 뭐 구도자의 신념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진중권 자유기고가 )

한 사람이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병역의무로 인해서 많이 가능하다 이런 사고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죠. 뭐 주관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남한테 까지 강요를 하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고생을 시키거든요? 저는 이런 걸 폭력이라고 봅니다..

————————————————————————

(오태양)

양심과 신념을 따라갈 때, 걸릴 수 밖에 없는. 제가 감당해야할 만한 것들이 여럿 있는거 같아요. 전과자가 된다는 것.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근데 그거는…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

————————————————————————

1. 3. 24

대학생 연대 활동가

태양씨도 불구속 수사가 확정되어 이자리에 참석.

(오)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양심이라든가 개인의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비정상으로 또 범죄행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징병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대체 복무제도가 없는 징병제도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임태훈)

제가 또 동성애자니까 커밍아웃하고 활동하면서 이 문제가 더 꼬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방부령에 보면 동성애자는 군대도 안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에이씨 가지 말까? 정신과 진단서 받아 가지고” 이런 생각도 사실상 했었어요. 근데 그건 또 내 양심…왜나면 우리는 이게 정신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실 또 아니고… 참, 두려워요 개인적으로는… 워낙 자유분방해 가지고, 어디 갇혀 있으면, 또 동성애자라고 독방에 가둬 놓을 거 아냐…하하. 이게 몇 평이죠 거기? 0,75평? 이 덩치가 거기 들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곰 사육하는 거죠.…

(유호근)

제가 아직 까지 군대를 안 간 이유는, 제가 학교 다닐 때 통일운동을 했는데… 구호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동족에게 총 부리를 겨눌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저학년 때부터 와 닿았고…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력특례를 통해 방위산업체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주저스러운 것이 있어요. 책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 그냥 다른 일을 하게 되고.…군 문제와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민족의 관점으로도 그렇구요. 개인의 관점으로도 군대라는 공간의 비인간적인 그런 구조를 전 좀 거부하는 쪽이에요. 개인의 속성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참여자1)

저는 나라에서 군대 오지 말라는 여성이지만, 군대에 누구나 다, 가고 싶지 않아도 끌려가야 한다는 메카니즘에 반대하고, 또 그런게 (병역거부)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저 같은 여성의 권리도 신장되는 사회가 온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병역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 거구... 같이, 함께 고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2)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뭐냐구. 나보고 그럼 군대가지 말고 감옥 가라는 거냐구. 하하하. 막 이래요. 너라면 그러겠냐구? 막 이러고.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게 (병역거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많으니까, 알려야 할 것 같구요…

(노래)

손 맞잡고, 가로 질러, 들판 사이라면 어기어차 ..두고…

————————————————————————

1. 7. 17

제헌절 1인 시위

(시민)

그러니까 병역 거부권을 달라. 이 말입니까?

(유호근)

예

(시)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유)

그 이전에요.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시)

아니아니. 글쎄. 나라는 다 거부하고 군대가 없어졌다..

(유)

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

(시)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그럼 나라는 어떻게 지킨다는 말씀이신지

(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시)

예

(유)

다만 외국의 경우에도 총을 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병역거부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의…

(시)

아니아니. 내 생각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은 해도. 저렇게 목숨을 바치고 하는데 말하자면? 총을 든다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거거든? 근데

그럼 너넨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못하겠다 그얘기 아냐?

(유)

그러니까 군인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시)

아니아니 한 번 연구를 잘 해보쇼. 자기들은 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는게 뭐야….

————————————————————————

(정창인 재향군인회 )

지금 한국의 현 상황은 정치 체제가 완전히 다른 북한의 군사 독재 국가로부터 항상 안보 위협을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은 장거리포, 핵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언제든지 자유대한민국을 접수할 어떤 그러한 각오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자 오슬로대 한국학)

북한 위협이라는 신화를 활용해서 대개는 하층민 ,일반인들의 복종심리 그리고 단결심리. 다르게 말해서 공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대치상황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상기시켜 드려야죠. 병역거부 시작이 제 1차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대치 상황도 아니고 전쟁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거부할 사람은 거부한 것이죠.

————————————————————————

1. 10 .8 뉴스

(김대중 대통령 )

평화 토대는 튼튼한 안보!

헌법성의 국민의 의무 기여도에 위배될 뿐 아니라 70만의 젊은 이들이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마당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창인 재향군인회)

우리가 어떤 대체란 말을 쓸 때엔, 어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다른 수단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병역의 의무가 국토를 방위하는 것이니까 적의 침공으로부터 전투를 통해서 적의 침략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군사력 형성에 참여하는 것인데, 병역거부자들이 말하는 대체 복무는 병역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다…

(신윤동욱 한겨레신문사)

국방의 의무가 단순히 총을 드는 것에만 있지 않고 사회의 안전망들을 구축하는데 보태는 것도 국방의 의무 중 하나라는 해석이 진행 되었고, 병역거부자들은 다른 형태로 한국사회의 평화안전을 위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체복무를 그 분들이 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만은 아니다…

(제성호 중앙대 법과대학)

다른사람 다 나가서 군대 가면 어떻게 이제 65만명 중에 50만이 사병인데 너도 나도 나가면 군대가 유지가 되냐 이말이죠.

(진중권 자유기고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한다를 가지고 갑자기 60만 군대 중에서 4-50만이 안가겠다 라던지 아님 10만 정도가 안가겠다 아니 5만이 안가겠다,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상 대체 복무를 4년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4년 택할 사람들 많아요….1년 예를들어 어디 갇혀있겠습니까. 2년동안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보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둘 중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한국은 만일의 경우에 죽을 수 있는 곳이 군대에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병역 기피현상이 많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조국 서울대 법과대학)

군대를 안 간다고 내가 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한다는 것이고 총을 잡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불우아동을 돕겠다거나 감옥에서 봉사한다거나 사회망 관련된 것을 한다면 병역기피를 할 확률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이 초점은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를 인정 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름 하에서 병역기피를 할 빌미를 자르게 되는, 그리고 자르려면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와 질, 이것들을 정확히 규정하게 되면 기피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봅니다.